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곽근*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서 4주 동안 어학 공부를 한 곽근* 학생입니다. 파견대학에 위치는 수빅으로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티비에 서 보던 것과 많이 달랐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규모 및 시설은 만족했습니다. 3명이 사용하기에 방도 충분하였으며, 에어컨도 저희가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어서 더위를 느낄 수 가 없었습니다. 또한 식당 밥은 한식에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생 나름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풀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업	수업에 관해서는 1:1과 그룹강좌로 분류가 되는데, 그룹강좌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주셨고 학생들이 지루하거나 졸리는 것을 느낄 때 마다 지루 하지 않게 수업을 잘 유도해주셨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 등등 언제든지 질문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는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은 카마얀 비치투어와 요트투어를 하였습니다. 그 외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하였습니다. 요트투어는 시간당 6천페소 정도이며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만친구들과 다 같이 갔습니다. 4시간 이용을 한다면 스노쿨링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을 사 갈수 있으며 고기를 구울 때는 번개탄 같은 것을 사가야 합니다. 참고로 스노쿨링장비를 잃어버리면 2천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마얀 비치는 500페소의 입장권을 내야하며 생각보다 물이 엄청나게 맑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맑은 물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라 날씨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하늘이 꽤창 한대도 갑자기 비가오고 갑자기 맑아지고의 반복 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더위 체감은 오히려 필리핀이 조금 더 시원했습니다.
안전	언제가도 안전 할 것 같습니다. 몇몇 현지인들은 저희를 보고 인사도 해줬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횡단보도 밖이 아닌 안으로 걸어야 경찰한테 주의를 안 받습니다. 또한 길가다가 여성이 다가와서 핸드폰번호나 물어본다면 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 숙소(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컨이나 침대 등등 또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빨래도 다해주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식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맛있는 밥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맛보는 식당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자주 밖으로 나가서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이나살과 본촌치킨 줄리비 등등 이 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FB라는 버스를 타거나 콜택시를 타야합니다. 교통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FB는 13페소며 콜택시는 200페소 기본택시는 120페소입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0만원	식사 선물
추가환전	30만원	식사 선물
합계	136,6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옷을 많이 가져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틀에 한번 씩 빨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나가서 식사를 많이 안하고 선물을 적게 산다면 상관없겠지만,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은 넉넉한 게 좋습니다. 추가로 뺏으려면 추가수수료와 환율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 돈이 아마 족히 9천원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제품 들은 웬만한 약들은 학원에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벌레 물리는 약은 하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서7월이 우기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산도 필수입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4주라는 시간동안 영어가 엄청나게 늘 것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진 않을까?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첫날 너무나 어색해서 인사만 대충하고 바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자연적으로 흐르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은 어색하지도 않고 종종 연락하는 사이까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4주 동안 영어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진 못했지만 분명히 조금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성정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해주었고,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문장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저에게 상당히 큰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 문장이 하나하나 이해가 가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 쯤에 4주가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4주동안 너무나도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꾸준히 영어공부를 틈틈이 한다면 분명

히 큰 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토익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느낀 것 중 중요한 것이 내가지금 어느 부분에 영어가 부족한 지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것 입니다. 4주는 분명히 짧은 시간 이지만 4주라는 시간 안에 변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교환학생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한국과 대만학생들 다같이 고아원 봉사활동에 갔을 때 저희를 반갑게 맞아준 아이들 사진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저희들을 위해 합창곡을 준비하였었습니다.



아침밥을 사진으로 찍은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침밥은 빵과 과일 그리고 스프나 죽으로 나오며, 그 외는 항상 한정식으로 나옵니다..



요트 투어갔을 당시 남자학생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대만학생들이 요트위에서 다이빙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들 입니다.



마지막 떠나는날 대만과 한국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 재밌는  
게임을하였습니다.



마지막 떠나기전날 선생님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시간을  
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